

## 地域住民을 고려한 山林管理方案에 관한 研究

— 서울대 南部演習林을 중심으로 —  
孫喆鎬<sup>1</sup> · 尹汝昌<sup>2</sup>

## A Study on Forest Management based on Residents

— Focused on the Southern Experimental Fores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  
Cheol-Ho Shon<sup>1</sup> and Yeo-Chang Youn<sup>2</sup>

### 요 약

지역주민을 고려한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대 남부연습림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주민들의 대학연습림에 대한 인식 및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결과, 지역주민들 가운데 대학연습림에서 직접적인 소득을 얻지 못한 사람의 경우 대학연습림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 혹은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역내 장기적인 거주자일수록 대학연습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차츰 지역주민의 의식이 변화하고 외지인들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대학연습림에 대한 개발의식 및 이용요구가 지역사회에 퍼져나가는 상황에 놓여있어 대학연습림의 토지에 대한 이용요구 등 제반 요구사항이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어 장기적인 대책수립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대학연습림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학연습림 본래의 목적 및 그 의미를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할 뿐만 아니라 대학연습림 관리에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주민과 대학연습림과의 관계창구, 즉 대학연습림의 관리를 위한 지역주민과 지방행정관서 그리고 대학연습림으로 구성된 대학연습림 장기발전 협의체의 구성이 요구된다.

### ABSTRACT

This paper aims to identify how residents recognize university experimental forest and what kind of relationship is between residents and that, and also to take a management scheme of that. As results, residents who have not got an income from the university experimental forest take a negative or indifference recognition to the effect of that on regional society, and inhabitants been lived there for long time have more negative one. Recently, residents' demand of using that is increasing due to changing residents recognition and increasing immigrants into region. Therefore, The administration of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Division of Forest Policy Research,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Seoul, Korea  
2. 서울대학교 Department of Forest Resource, Seoul National University, Suwon, Korea

university experiment forest has to organize a conference group for long-term development of university experimental forest, which is, composed the residents, region officer, and then to contact among them.

*Key words* : Forest Management, university experimental forest, regional society, southern experimental fores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 I. 서 론

대학연습림의 경우 학술목적으로만 관리되 기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의 국토이용계획과 지역주민과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상당면적의 산림이 다른 용도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예로, 서울대 남부연습림의 경우 국립공원과 자연환경보전지구로 각각 지정되어 있다<sup>1)</sup>.

대학연습림이 그 설립 초기과정<sup>2)</sup>에서 비록 국유림으로 편성되었지만,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산림의 경우 임지소유권은 국가에 있더라도 비목재 임산물의 실질적인 이용은 지역주민들이 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많은 비목재 임산물들이 공유자산으로서 이용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김의경 등, 1995). 또한 일부 국유림의 경우 지역주민의 권리를 인정하고, 지역사회의 발전 기회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립대부와 분수림제도, 그리고 국유림

의 대부(사용허가)제도에 의하여 지역사회에 관리 양여되어 왔다(윤여창 등, 1994).

그러나 국유림에 속하지만 학술림이라는 특수한 목적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대학연습림 이용을 둘러싸고서 그 동안 끊임없이 마찰음이 존재하였다. 즉, 대학연습림과 지역사회는 자원의 관리 및 이용에 있어서 상호협조의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대립의 관계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예는 서울대 남부연습림에서 찾을 수 있는데, 50년대와 60년대 대학연습림 관리를 위한 도벌감시과정에서 야기된 지역주민과 대학연습림 직원들간의 불편한 관계, 영림계획에 따른 입목 벌채 수행과정에서 대학연습림 당국과 지역사회의 마찰, 그리고 지역사회가 요구한 자연휴양림 입지 선정과정상의 마찰, 지역주민의 고로쇠나무 수액채취권 인정과정에서 야기된 지역주민과의 불협화음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대학연습림이 단순히 학술림 목적이 아닌 자연환경보전지구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이견과 대립을 보였다(김의경 등, 1995).

그러한 가운데도 대학연습림은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써 고로쇠나무 수액 채취, 연습림 노임소득, 산채채취판매, 뿔나무확보 등을 들 수 있고, 아울러 백운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임지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적인 가치제공 이외에도 수려한 경관과 깨끗한 물, 그리고 신선한 공기 등을

1)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이하 대학연습림이라 함)은 조선총독부 소관 국유림을 대부하여 1912년 12월 동경제국대학의 대학연습림으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1946년에 서울대학교가 대학연습림 목적으로 80년 계획으로 농림부에서 대부하였다가 1958년 그 소관이 문교부 소관으로 관리 전환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학연습림으로 유지되고 있다(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속연습림, 『서울대학교 연습림 50년 1946-1995』, 1996. pp.367-371.)

2) 1908년 森林法에 의하여 개인의 소유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산림을 제외한 나머지 일체의 산림을 국유림으로 간주한다는 부칙조항에 의하여 탄생되는 과정에서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던 많은 산림도 국유림으로 편성되었다.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아름답고 풍요로운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무형적인 가치제공을 하고 있다.

대학연습림이 위치하고 있는 인근지역주민들의 의식이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인 변화와 더불어 차츰 변화하면서 대학연습림에 대한 의식에서도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인근지역사회의 지역주민들 중 개발투자를 선호하는 외지인들의 구성비율이 높아지면서 인근지역사회도 지역개발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 식민지시대가 낳은 종속된 결과로부터 지역의 생산 및 생활수단을 개선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운동(최병두, 1994; Rubin & Rubin, 1986)으로 발전될 수 있고, 아울러 지역개발방향의 설정에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상황식 지역개발방식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Friedmann, 1970).

그 뿐만 아니라 대학연습림으로부터 소득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인근지역주민들의 경우 대학연습림을 부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거나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오히려 대학연습림의 임대 등을 통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대학연습림 당국에서는 먼저 대상임지를 고려한 후, 산림관리를 통한 소득창출 기회가 가능한 산림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임대제의를 일부 수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연습림 인근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대학연습림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수렴함으로써 지역주민을 고려한 산림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 II. 연구방법

조사대상지역이 소재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은 총면적 16,218 ha에 달하는 방

대한 산림면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구례군과 광양시에 각각 5,245ha와 10,973ha가 분포하고 있다. 구례군에 위치하고 있는 산림은 주로 지리산국립공원 내에 분포하며, 산림자원의 이용은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단지 일부 지역주민의 고로쇠나무 수액 채취 차원에서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는 달리 광양시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연습림의 경우 대부분이 白雲山에 위치하고 있고 광양시 전체 산림면적 27,895ha중 39.3%를 차지하고 있다<sup>3)</sup>. 주로 목재의 벌채, 고로쇠나무 수액 채취, 밤나무단지의 조성 관리,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으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백운산 능선의 중복부 이상 974ha가 자연생태계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산림이 이용되고 있다(김의경 등, 1995).

이 연구에서는 서울대 남부연습림 가운데서 지역주민의 거주공간에 따른 지역주민의 대학연습림과의 관계 비교가 용이한 지역을 조사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조사대상 지역은 광양시 옥룡면과 구례군 토지면의 일원이다. 이들 지역은 계곡을 따라 마을이 분포하는 특성을 보이는데 계곡의 하단부에서 마지막 마을이 위치하는 곳까지 옥룡면의 경우 20km, 토지면 피아골의 경우 12km에 달한다. 계곡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의 경우 대학연습림과는 상당한 거리에 위치해 있고, 아울러 대학연습림의 직접적인 이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에 계곡의 중간 위치나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의 경우는 고로쇠나무 수액 채취권을 부여받거나 인근 산림을 이용하여 한봉을 사육하는 등 대학연습림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결국 이러한 지리적 공간적 분포의 차이는 이들 대학연습림을 인식하는데 있어 다른 결

3)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속연습림. 「서울대학교 연습림 50년 1945-1995」. 1996.

〈표 1〉 각 구분지역별 설문조사부수

단위: 명, (%)

구 분	옥 룽 면		토 지 면		계
	자 연 마 을	소 계	자 연 마 을	소 계	
산촌지역	심원(8), 논실(9), 진틀(7)	24	직전(14), 당치(3), 농평(3)	20	44 (27.3)
중간지역	선동(3), 동곡(7), 동동(9)	19	평도(8), 남산(12)	20	39 (24.2)
평야지역	추동(16), 외산(7), 상산(8), 중산(7)	38	기촌(40)	40	78 (48.5)
계	10개 마을	81	6개 마을	80	161 (100)

자연마을의 ( )안 숫자는 각 마을에서의 설문조사부수임

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사 대상지역을 계곡 상단부(산촌지역), 중간부(중간지역), 그리고 하단부(평야지역) 마을들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광양군 옥룡면과 구례군 토지면의 2개 지역에서 각 지역별로 3개 마을유형으로 구분한 후, 각 유형에 해당하는 지역을 선정하고, 그 지역에 위치한 모든 자연마을을 포함하였는데, 광양군 옥룡면은 10개 자연마을, 그리고 구례군 토지면은 6개 자연마을을 각각 조사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파악하였으며, 방문조사에서는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변수와 지역주민과 대학연습림과의 관계를 고려한 변수들을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1996년 8월에 조사대상 지역내 자연마을에서 임의로 선정한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sup>4)</sup>, 조사결과 수집된 최종 설문조사부수는 옥룡면 81부, 토지면 80부 등 총161부로서 각 유형별 조사현황은 표 1과 같다.

### Ⅲ. 결과 및 고찰

#### 1. 지역주민의 거주기간 및 외지인의 유입 상태

연습림 인근지역 주민들의 유입실태를 파

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동일 시·군내에서 생활했던 주민들인지 아니면 다른 시·군으로부터 유입되었는지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중 11.5%인 18명의 응답자가 외지에서 유입하였다. 외지유입자가 나타난 곳은 산촌지역이나 평야지역이었고, 중간지역의 경우 전혀 외지 유입이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산촌지역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25%가 외지에서 유입한 것으로 나타나 산촌지역에서의 외지유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대부분의 산촌지역에서 인구의 유출이 극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과 매우 상반된 결과인데 이러한 현상이 이들 지역에서 특수하게 나타나는 것은 관광객들의 탐방으로 인하여 소득창출기회가 매우 높기 때문으로써 외지자본의 유입으로 귀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외지인의 지역내 유입에 있어 옥룡면(7.8%)보다는 토지면(15%)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그 지역의 또 다른 사회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옥

4) 이 논문은 설문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한 의식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시점 또는 향후의 의식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조사대상지역에서의 시기별 의식비교분석을 통한 의식변화를 밝히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꼭 필요하다. 따라서 미래 지향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그 동안 사정되어 왔던 조사 결과를 현 시점에서 비록 시기적으로 뒤늦은 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밝혀둘 필요가 있다.

〈표 2〉 거주지역별 지역주민의 지역내 유입여부  
단위: 명, (%)

구 분	평야마을	중간마을	산촌마을	계
지역 내	69	37	33	139 (88.5)
외지로부터	7	-	11	18 (11.5)
계	76 (48.4)	37 (23.6)	44 (28.0)	157 (100)

$\chi^2 = 13.113(P < 0.0014)$

주 1) 외지는 소재지역의 해당 시·군 이외의 모든 지역을 의미함

룡면의 경우 마을내 가옥들의 분포가 집중되어 위치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주민들간의 융화 및 인식의 정도가 매우 높아 외지인의 정착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에 토지면의 경우는 계곡과 도로를 따라서 가옥들이 분산되어 분포하므로 인하여 주민들간에 서로 일정한 거리가 존재하므로 외지인들의 유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데 기인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역주민들의 지역내 거주기간을 조사함으로써 최소한 2代이상 지역에서 거주한 고유의 지역주민 즉, 원주민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았다<sup>5)</sup>. 이는 그 동안 이들 지역에서의 인구동태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지역내에서 거주 정도에 따라서 지역산림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기를 비교하여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된다.

전체 응답자중 지역 안에서 2代이상 거주한 경우는 61.7%이고, 나머지는 현세대가 동일 군의 다른 읍·면이나 다른 군으로부터 이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자들 가운데 지역 안에서 30년 이상 거주한 경우가 70%로써 이들의 경우는 1960년대나 그 이전에 이들 지역에 이주해온 것임을 의미한다. 반

면에 20년 미만은 80년대 중반이후에 이주해온 경우로써 이들은 기존의 이주자들과는 다른 목적으로 이들 지역에 유입되어 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최근에 이주해온 경우 즉, 10년 미만은 이들 지역이 관광지역으로 변모하는데 따른 기대심리로 외지자본을 갖고서 유입한 경우이다.

거주기간은 마을유형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산촌지역, 중간지역, 평야지역의 순으로 최근 이주자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산촌지역은 지역에서 2代이상 거주한 원주민이 43.2%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온 경우로서 최근 20년 안에 이주한 경우도 15.9%로써 다른 지역에 비하여 최근 이주자들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이러한 현실은 1980년대 중반 처음 이곳을 방문하였을 때와 1990년대 이후 매년 이곳을 방문하여 살펴본 결과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1980년대 중반에는 이들 지역에서 개발투자의 모습은 별로 두러나지 않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는 이들 지역이 개발분위기로 전환되면서 외지투자자들의 유입이 급증하였고, 지역주민들도 외지자본 혹은 은행에서 차용하여 개발분위기에 편승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분위기는 주로 산림자원이 수려하고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많은 산촌지역에서 훨씬 강하게 나타났고, 옥룡면과 토지면 두 지역가운데에서도 토지면에서 더욱 극심하였다. 그리고 옥룡면의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개발이 이루어진 반면에 토지면의 경우는 외지 유입자 및 외지자본에 의해 개발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진데서 차이를 보인다.

다음으로 출생지와 거주기간간의 상호비교를 통하여 서로의 관계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출생지는 동일 시·군내에서 출생한 경우와 다른 시·군에서 출생한 경우로 구분하

5) 지역사회연구에서 농촌사회학자나 도시사회학자 모두 주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에 많은 연구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반대로의 유입에 대한 관심은 극히 드물고 최근에 일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지역사회학, 안태환 역).

〈표 3〉 지역주민들의 지역내 거주기간

단위: 명, (%)

구 분	평야마을	중간마을	산촌마을	계
10년 미만	1 (1.3)	-	4 (9.1)	5 (3.2)
10년~20년	1 (1.3)	1 (2.6)	3 (6.8)	5 (3.2)
20년~30년	4 (5.4)	3 (7.9)	1 (2.3)	8 (5.1)
30년 이상	14 (18.7)	11 (28.9)	17 (38.6)	42 (26.8)
2代 이상	55 (73.3)	23 (60.5)	19 (43.2)	97 (61.7)
계	75 (100)	38 (100)	44 (100)	157 (100)

$\chi^2 = 19.102$  (P < 0.0143)

여 살펴보았다. 동일 시·군내에서 이주한 경우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30년 이전에 이들 지역으로 이주했었다. 평야지역이나 중간지역의 경우 70년대 중반까지도 어느 정도 이주가 있었지만 최근 20년 간에 동일 시·군내에서 이주해온 경우는 불과 1건에 불과하고, 산촌지역의 경우도 과거 30년 동안에 1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30년 이전의 경우에는 산촌지역이나 평야지역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외지로부터 유입되었지만, 1960년대 중반이후부터는 농·산촌지역에서의 인구유입은 둔화되는 반면에 인구유출이 심화되는 인구변화과정을 보이고(손철호·윤여창, 1996), 이는 경제성장과정에서 야기된 중속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渡邊利夫, 1995). 타 시·군에서 출생하여 이들 지역으로 이

주해온 응답자들의 경우 거주기간을 기준하면 크게 두 집단으로 구분된다. 즉, 1960년대 중반이전에 이주해온 경우와 최근 20년 동안에 이주해온 경우이다. 전자에 이주해온 경우는 산촌지역이나 평야지역에 이주한 반면에, 후자에 이주해온 경우는 주로 산촌지역으로 이주했다는 데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2. 지역주민의 소득구조와 농경지 활용실태

### (1) 지역주민의 소득구조

조사대상지역의 연간가구소득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고, 대부분이 연간 1,500만원 이내의 가구소득을 얻고 있다. 지역별로는 옥룡면의 경우 마을유형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는데, 평야마을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반면에 산간마을의 경우는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고로쇠나무 수액 채취와 연간 가구소득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인정되었다<sup>6)</sup>.

전체 응답자의 주된 가구소득원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50.3%가 임업소득에 의존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농업소득 30.9%, 그리고 관광소득 14.1% 등의 순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이는 평야마을과 중간마을에서는 농경지의 활용이 가능한 반면에 산간마을의 경우는 농경지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농경지의 입지여건이 열악하고,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업소

〈표 4〉 지역주민의 출생지별 거주기간

단위: 명, (%)

구 분	10년미만	10년~20년	20년~30년	30년 이상	2代 이상	계
동일 시·군	1 (0.7)	1 (0.7)	7 (5.1)	33 (24.1)	95 (69.3)	137 (100)
타 시·군	4 (22.2)	4 (22.2)	1 (5.6)	8 (44.4)	1 (5.6)	18 (100)
계	5 (3.2)	5 (3.2)	8 (5.2)	41 (26.5)	96 (61.9)	155 (100)

$\chi^2 = 58.514$ (P < 0.000)

6) 실제 수액 채취지역의 경우 가구의 소득수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연구된바 있다(박정호 등, 1999: 안종만 등, 2000)

〈표 5〉 지역별 마을유형별 연간가구소득수준

단위: 명, (%)

구 분	옥 룽 면			토 지 면			계
	평야마을	중간마을	산간마을	평야마을	중간마을	산간마을	
500만원 미만	19	6	4	11	9	5	54(37.8)
500~1000만원	12	9	8	16	5	4	44(30.8)
1000~1500만원	4	3	5	6	4	7	29(20.2)
1500~2000만원	—	—	3	1	—	—	4( 2.8)
2000~3000만원	1	—	3	1	—	1	6( 4.2)
3000만원 이상	1	—	—	2	1	2	6( 4.2)
계	37	18	23	37	19	19	143(100)

$\chi^2 = 19.113(P < 0.038)$ ,  $\chi^2 = 8.746(P < 0.556)$

득의 의존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가구 소득원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옥룡면의 경우 농업소득(44.9%)과 임업소득(41.0%)의 구성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토지면의 경우는 임업소득(57.3%)과 관광소득(20.0%)의 구성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두 지역 모두 근로소득에 의존하는 경우는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 마을유형별로는 옥룡면과 토지면의 산간마을의 경우 주 소득이 농업이외인 경우가 각각 100%와 77.8%로서 비농업부문 의존률이 매우 높고, 특히 옥룡면 산간마을의 경우 임업소득이 주 소득이며, 토지면 산간마을은 관광소득이 주 소득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가구소득원의 특성은 경지면적이 협소한 중간마을과 산간마을에서는 농업소

득에 의존하기보다는 임업소득이나 관광소득 등 비농업적 소득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이들 지역에 대해 농업 중심적인 정책접근에만 국한하지 않고 임업 측면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접근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2) 대학연습림 주변지역의 토지 활용실태

대학연습림 인근의 지역사회에서 농업의 존도가 낮은 이유를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내에서 주된 경지이용형태인 밭을 이용하여 상품생산목적의 작물재배실태와 유희지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각 마을유형별로 밭을 활용하여 판매목적으로 작물을 생산하고 있는 경우를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전체 응답자중 밭을 소

〈표 6〉 지역별 마을유형별 가구소득원

단위: 명, (%)

구 분	옥 룽 면			토 지 면			계
	평야마을	중간마을	산간마을	평야마을	중간마을	산간마을	
농업소득	25	10	—	6	1	4	46(30.1)
임업소득	8	7	17	25	15	3	75(49.0)
근로소득	2	1	1	3	2	—	9( 5.9)
관광소득	—	—	6	4	—	11	21(13.7)
기 타	—	1	—	1	—	—	2( 1.3)
계	35	19	24	39	18	18	149(100)

$\chi^2 = 41.292(P < 0.000)$ ,  $\chi^2 = 32.739(P < 0.000)$

$\chi^2 = 43.565(P < 0.000)$ (두지역을 합한 마을유형간의 비교)

주) 임업소득: 고로쇠나무 수액, 버섯, 밤, 한봉 산채 관련 소득 포함.

관광소득: 숙박, 식사, 토산품판매 관련 소득 포함.

근로소득: 농림업과 관련되지 않는 일반 근로소득을 의미함.

<표 7> 지역내 밭에서 판매목적으로 작물 재배 여부

단위: 명, (%)

구 분	평 야 지 역		중 간 지 역		산 촌 지 역		계	
	밭소유자 <sup>1)</sup>	판 매 <sup>1)</sup>	밭소유자	판 매	밭소유자	판 매	밭소유자	판 매 <sup>2)</sup>
옥룡면	19	7	13	5	13	8	45(63.4)	20(44.4)
토지면	11	10	5	1	10	6	26(26.6)	17(65.4)
계	30	17	18	6	23	14	71(100)	37(52.1)

주 1) 밭 소유자는 밭을 소유한 경우를 의미하며, 판매는 밭 소유자 가운데 밭작물을 판매목적으로 재배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의미함.

주 2) 밭 소유자 가운데 판매목적으로 재배·생산하는 경우의 비율임.

유하고 있는 경우는 44.1%인 71가구이며, 판매목적으로 밭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가구는 37가구로 조사되었다.

현재 농경지를 늘리고 있는 경우 즉,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중 유휴농지를 갖고 있는 경우는 28.9%이고, 지역별로는 옥룡면(26.6%)보다는 토지면(31.3%)에서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마을유형별로는 산간마을의 경우, 관련 응답자의 60.5%가 유휴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는데, 이는 평야마을 12.7%, 중간마을 19.4%와 비교할 때 매우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산간지역의 경우 농경지의 평균경사도가 높고, 경지정리는 거의 전무한 상태, 그리고 수리시설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농기계의 진입이 불리한 지역, 이른바 농업여건이 매우 불리한 지역으로서 유휴경지 발생률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김병택 등(1996)이 본 조사지역의 산간마을과 유사한 농업쇠퇴지역과 개발기대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른 연구에서도 총경지면적중 유휴경지 면적비율이 각각 36.4%와 44.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들 지역의 경우 관광지역으로의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하고 있고, 실제로 농경지 등이 주택지나 기타 용도로 전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토지면의 직전이라는 산촌마을의 경우 도로주변의 농경지들이 90년대 들어 관광개발여건이 조성되면서 주택

지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마을 주변에 위치해 있던 많은 농경지들이 거의 사라진 실정이고, 옥룡면의 산촌마을의 경우도 승용차를 이용한 내방자의 증가로 인하여 마을근처의 도로변 농경지가 주차장으로 전용되고 있다.

실제 유휴농경지의 발생이유를 보면,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나타나고 있는데, 노동력이 부족하여 경작을 할 수 없다는 이유(28.6%), 경작을 해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28.6%), 그리고 지세가 험준하여 농기계 등이 진입하기 곤란하다는 이유(28.6%)를 각각 들고 있다.

다음으로 유휴경지의 활용계획을 살펴본 결과, 나무나 산채 등을 심거나, 주말농원 등의 용지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일부는 현 상태로 방치할 의사도 갖고 있었다. 실제 이러한 활용계획은 유휴경지의 경제적 활용방안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써, 이들 지역에서 유휴경지의 경제적 활용방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조림, 산채(약용) 재배, 그리고 주말농원 조성 등의 순이었다. 또한 유휴경지를 팔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이유로서는 장래 토지용도변경(32.5%), 농토에 대한 애착심(20.0%), 유산으로 상속하기 위하여(17.5%) 등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 3. 대학연습림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먼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대학연습림



〈표 8〉 유흥농지의 소유여부

단위: 명, (%)

구 분	옥 룽 면			토 지 면			계
	평야마을	중간마을	산간마을	평야마을	중간마을	산간마을	
있 다	2	2	13	5	5	10	37 (28.9)
없 다	24	15	8	23	14	7	91 (71.1)
계	26	17	21	28	19	17	128 (100)

$\chi^2 = 20.101 (P < 0.000)$ ,  $\chi^2 = 8.569 (P < 0.013)$   
 $\chi^2 = 26.735 (P = 0.000)$  (두 마을을 합한 마을유형간의 비교)

의 존재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펴 본 결과, 옥룡면의 경우 대학연습림의 존재를 모르는 응답자는 한 명도 없는데 비하여 구례군 토지면의 경우 응답자의 15%가 대학연습림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토지면의 산촌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 즉, 대학연습림에서 고로쇠나무 수액 채취 등으로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에서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3가구에 달한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연습림이 지리산 국립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학연습림에 대한 홍보 부족이나 지역주민과의 소원한 관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표 9〉 지역산림내 대학연습림의 존재 인식

단위: 명, (%)

구 분	평야마을	중간마을	산촌마을	계
알고 있다	38	19	24	81 (50.3)
모르고 있다	32	19	17	68 (42.2)
모르고 있다	-	-	-	-
모르고 있다	8	1	3	12 (7.5)
계	78	39	44	161 (100)

다음으로 지역주민들의 대학연습림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54.5%,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경우는 13.5%, 그리고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견해가 32.0%로 각각 나타났다. 이러한 견해차이는 지역주민들이 대학연습림과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가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써 대학연습림과 인접한 산간마을이나 중간마을의 경우 응답자의 82.7%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고, 12.3%는 영향이 없다고 인식하였다. 반면에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평야마을의 경우는 단지 응답자의 24%만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하고, 22.7%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평가하였으며, 53.5%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평가함으로써 마을유형간에 대학연습림에 대한 인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학연습림이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견해가 옥룡면의 평야마을과 토지면의 산간마을에 한정하여 나타나고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응답자는 전원 원주민들로서 지역에서 30년 이상 또는 2대이상 거주한 주민이라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견해를 보인 이유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6) 본 질문은 불과 10년 전만 하여도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사람이 대학연습림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그 이유는 외지인들의 유입이 잦으면서 지역사회와 일정한 지리적 거리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연습림과 거의 관계가 없어 대학연습림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긍정적인 영향

대학연습림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한 가장 주된 이유로써 경제적 이득을 들고 있다. 현재 대학연습림 인근지역의 주민들이 대학연습림내에서는 고

〈표 10〉 지역내 대학연습림이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

단위: 명, (%)

구 분	옥 룽 면			토 지 면			계
	평야마을	중간마을	산간마을	평야마을	중간마을	산간마을	
긍정적 영향	4	17	21	14	18	11	85 (54.5)
부정적 영향	17	-	-	-	-	4	21 (13.5)
영 향 없 음	17	1	3	23	2	4	50 (32.0)
계	38	18	24	37	20	19	156 (100)

$\chi^2 = 52.786(P < 0.000)$ ,  $\chi^2 = 29.405(P < 0.000)$   
 $\chi^2 = 3.399(P < 0.493)$ (마을유형간의 비교)

로쇠나무 수액 채취를 통하여 가구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본 조사지역주변의 산림이 소속되어 있는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인근 지역의 총 414가구에서 수액을 채취하고 있다<sup>7)</sup>. 이러한 경제적 이득은 대학연습림의 인근마을에 국한되어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수액 채취 권한을 대학연습림내 수액 채취가 가능한 지역과 인접한 마을에 한정하여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조사 지역 가운데 산간마을과 중간마을의 경우 수액 채취 권한이 부여되지만 평야마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결국 상대적으로 경제적 혜택에서 소외된 평야마을의 경우는 대학연습림에 대하여 부정적인 또는 무관심한 시각으로 의사 표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조사결과, 실제로 대학연습림에서 수액을 채취하고 있는 경우는 두 조사지역 모두 다 중간지역과 산촌지역이었고, 평야지역에서는 사례가 없었다. 그리고 중간지역과 산촌지역의 경우 총 조사농가 84가구중 76가구가 수액을 채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거의 마을전체가 수액채취에 관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액채취량에 있어서는 각 가구당 다소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각 가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수액채취 가능 고뢰쇠나무

7) 1996년말 현재 고뢰쇠수액(395가구), 거제수나무수액(19호) 등 총414가구에서 수액채취를 하고 있으며(서울대학교 연습림 50년 1945-1995. 1996. p.92), 이들 수액채취가구들은 대학연습림 인근의 2개 군의 8개 면내 총17개 리에 분포하고 있다.

〈표 11〉 대학연습림의 고뢰쇠수액 채취량

단위: 명, (%)

구 분	옥 룽 면		토 지 면		계
	중간마을	산촌마을	중간지역	산촌마을	
20말 미만	1	1	1	1	4 (5.3)
20~50말	11	4	6	5	26 (34.2)
50~100말	4	8	12	6	30 (39.5)
100말 이상	3	8	-	5	16 (21.0)
계	19	21	19	17	76 (100)

또는 거제수나무의 생육 본수 및 성장상태, 그리고 그 위치 등에 따라서 채취 가능량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또 다른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쾌적한 환경의 제공이다. 대학연습림이 위치하고 있는 이들 지역의 경우, 주변산림이 수려하고 이로 인하여 수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인위적인 개발이 억제됨으로써 자연경관을 순전히 유지할 수 있었고, 결국 이는 지역내 탐방객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부정적인 영향

대학연습림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출입이 통제되는 것과, 지역의 관광개발을 위한 토지수용에 있어 제약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옥룡면의 평야지역

〈표 12〉 대학연습림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단위 : 명, (%)

구 분	옥 룽 면			토 지 면			계
	평야마을	중간마을	산간마을	평야마을	중간마을	산간마을	
경제적 이득	—	17	19	4	16	8	64 (76.2)
쾌적한 환경	2	1	2	5	1	3	14 (16.7)
기술 지도	—	—	—	2	—	—	2 (2.4)
기 타	—	—	—	3	1	—	4 (4.7)
계	2	18	21	14	18	11	84 (100)

$\chi^2 = 15.281(P < 0.000)$ ,  $\chi^2 = 15.288(P < 0.014)$

$\chi^2 = 33.541(P < 0.000)$ (마을유형간의 비교)

조사결과에서 제기된 것으로 이들 지역주민들의 경우 대학연습림을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산림관리차원에서 이들의 요구가 수용될 수 없는데 따른 불만도 제기되었다.

대학연습림의 경우 그 출발역사에서 나타나듯이 대학연습림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이들 지역이 마을공동의 산림으로 유지 관리되어 왔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저변에는 대학연습림이 지역주민의 산림이라는 의식이 팽배하다는 것이다. 일제시대에 강제적으로 토지정리를 하면서 무주공산이나 연고자가 없는 산림의 경우 국유림으로 귀속하였는데, 당시 많은 마을공동의 산림 즉, 무주공산이 국유림으로 귀속되었고, 그 결과 지역주민들의 산림이용이 제약을 받아왔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개발을 위한 토지요구가 증가하면서 마을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연습림에 대한 이용요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

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그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가 차츰 높아지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단지 인근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대학연습림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 단위의 지역사회에서도 대학연습림은 첨예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대학연습림의 입목 벌채 과정에서 야기된 지역사회와 관계기관과의 마찰, 그리고 대학연습림 내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설립부지 선정상의 문제 등, 대학연습림의 토지 및 산림 등의 자원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지역사회와 관계기관과의 마찰은 일어났었다. 더욱이 지방자치시대로 전환하면서 지역주민의 의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지가 강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러한 마찰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와 대학연습림 당국간에 토지이용상의 문제에 대한 견해,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한 배려 등에 대하여 상호간의 협의와 지속적인 관계개선이 도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제시대와 해방이후의 강제적인 산림자원관리에서 이제는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종합적인 산림자원의 관리 등이 요구된다. 이는 그동안 대학연습림 직원들에 대하여 협조적이던 지역주민들의 태도나 반응이 현재에 이르러서는 차츰 비협조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처럼 시대에 따라서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변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산림자원의 관리차원에서 적절

〈표 13〉 대학연습림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단위 : 명, (%)

구 분	옥 룽 면 (평야마을)	토 지 면 (산촌마을)	계
지역민의 출입통제	8	—	8 (38.1)
관광개발시 제약	—	2	2 (9.5)
기 타	9	2	11 (52.4)
계	17	4	21 (100)

히 수용할 필요가 있다.

#### IV. 결 론

본 연구는 지역주민을 고려한 효율적인 산림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서울대 남부연습림을 사례로 인근지역주민들의 대학연습림에 대한 인식 및 관계를 학문적으로 파악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광양시 옥룡면과 구례군 토지면의 대학연습림 인근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대학연습림과의 관계 및 대학연습림에 관한 인식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로, 차츰 외지인들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대학연습림에 대한 개발의식 및 이용요구가 지역사회에 퍼져나가는 상황에 놓여있어 이들에 대한 대학연습림의 본래의 목적 및 그 의미를 홍보하고 산림관리에 지역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주민과 대학연습림과의 관계창구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대학연습림 인근의 지역주민들 가운데 현재 직접적인 소득창출과 관계가 먼 사람들의 경우 대학연습림의 지역내 소재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과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대학연습림에 대한 토지이용 및 기타 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어 장기적인 대책수립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지역내 장기적인 거주자일수록 대학연습림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그동안 대학연습림의 관리단계에서 야기된 제반 마찰의 누적결과로서 이해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들의 의견이 지역 내에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산림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임업노동소득을 올려 주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대학연습림을 지역주민 또는 지역사회의 교육, 문화 장소로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로, 지역사회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연습림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정치적 및 사회적 추세에 따라서 변화는 지역사회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변화를 파악하고 접수할 수 있는 창구로서의 기구나 체계가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예로서 대학연습림의 관리를 위한 지역주민과 행정관서 그리고 대학연습림으로 구성된 대학연습림 장기발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학연습림 차원에서는 지역주민 및 행정관서의 의견을 조기에 수렴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및 행정관서에서는 대학연습림에서 수행하는 제반 산림관리에 대한 이해와 필요사항을 사전에 요구하여 협조를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인 용 문 헌

1. 김병택·이영만·김의경·박명규·손철호. 1996. 낙후특정지역의 한계농지 유희화요인과 활용방안 -서부경남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상대 지역개발연구 7: 147~167.
2. 김의경·윤여창·손철호. 1995. 백운산 자연생태계보호지역에 있어서 임업적 이용과 생태계보전에 관한 연구. 경상대 연습림연구보고 5: 75~83.
3. 渡都利夫. 1995. 開發經濟學. 日本評論社. 261pp.
4. 박정호·안종만·강학모. 1999. 수액채취활동이 농림업생산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산림경제연구 7(2): 65~75.

5.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속 연습림. 1996. 서울대학교 연습림 50년 1946-1995. 386pp.
6. 손철호·윤여창. 1996. 산촌지역의 인구 변화과정과 과소화에 관한 연구. 산림경제연구 4(2) : 79-89.
7. 안종만·박정호·강학모·안기완. 2000. 고로쇠나무와 거제수나무 樹液生産構造에 관한 연구. 산림경제연구 8(1) : 28~42.
8. 안태환 역. 1995. 지역사회학, 원저는 "The Sociology of Community -Introduction to Modern Society Series by Jessie Bernard". 박영사. 272pp.
9. 최병두. 한국지역사회운동의 발달과정과 전망, "지역불균형연구, 한올아카데미, 한국공간환경연구회 엮음". pp.272-323.
10. Friedmann, John. 1970. Regional Development policy : A Case Study of Venezuela Part I. MIT Press. pp.1-101.
11. Rubin, Herbert J. and Irene Rubin. 1986. Community Organizing and Development. Merrill Publishing Company. 428pp.